

파격 장학금에 생활비·휴대전화 지급

지역 사립대 사활 건 신입생 모집

울 컷 입학정원 > 수험생 역전 지역대학 살아남기 기로 '총력전'

지역 주요 사립대학들이 학교 특색과 연계한 각종 지원책은 물론 파격적 장학 혜택까지 내세우며 신입생 모집기(?)에 나서고 있다. 광주 지역의 경우 수험생이 대학 입학정원보다 5000여명이나 적어지는 첫해로,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조선대는 파격적인 장학혜택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2021학년도 신입생 모두에게 입학금을 지원하며 수시(3687명)·정시모집 최초 합격자 중 상위 10%에게는 입학 첫 학기 200만원의 '첫 단추 장학금'을 준다.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학기당 생활비 350만원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입학성적 최우수자에게 4년간 등록금 전액 또는 절반을 감면하는 '입학우수장학금'과 '입학우수장학금2', 의·치의예과 신입생 중 성적 최우수자들을 위한 '의·치의예과 입학우수장학금'과 '의·치의예과 입학우수장학금2'도 운영한다.

전교생을 인공지능(AI) 융합인재로 키우는 AI 특성화 대학인 호남대는 2021학년도 신입생 전원에게 AI교육에 필수적인 스마트 기기를 지급한다.

수시모집에 최초 합격 뒤 등록금 신입생들이 대상이다. 5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태블릿PC를 비롯한 각종 스마트기기를 살 수 있는 교환권이나, 현금을 AI인재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수시모집 총원 합격 등록자에게는 20만원 상당의 에어팟을 비롯한 스마트기기 또는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호남대는 2021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모집 정원 1651명 전원을 선발한다.

광주대는 내년도 수시모집 등록자 전원에게 학업 활동 지원금 20만원을 지원한다. 입학 전형에 지원해 최초 합격한 신입생에게는 학업장려 장학금 40만원을 포함, 모두 60만원을 준다.

정원 내·외 전형에 복수 지원해 합격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들은 학업장려장학금 4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시(수능) 성적 장학금인 호심매원특별장학금과 여학우수장학금, 문화체육예술특별장학금, 장애학생지원장학금, 복지장학금, 외국인학생장학금, 다문화가족장학금, ROTC(학군단)장학금 등 50여종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23일부터 28일까지 41개 학과, 1605명의 신입생을 수시모집하는 동신대도 매력적인 장학 혜택을 준비했다.

수시 일반학과 입학생들에게는 수능 평균등급(4개 영역) 6.5등급까지 입학시 등록금 15% 감면부터 최대 4년 등록금 면제 혜택을 준다. 수시 최초 합격자에게는 수능 평균등급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학습보조비를 준다.

건축공학과, 도시계획학과, 융합정보안전공공, 전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과, 조경학과, 컴퓨터공학과는 수시 최초 합격자에게 등록금 전액을 감면하고, 최종 수시 합격자에게는 성적에 따라 50만원에서 1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대학 관계자들은 "입학 정원외 수험생 수가 역전된 상황에서 학교의 미래와 결부된 문제"라며 "전 교직원들이 사활을 걸고 신입생 모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가을 성큼...활짝 핀 상사화 20일 오전 시민들이 가을 전령사로 불리는 상사화가 핀 광주시 광산구 첨단둘레길을 산책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경찰 수사권 조정 세부안 반발...전남경찰 경우회 입법 예고안 수정 촉구

"견제와 균형 취지 못 살려"

경찰청도 대언론 등 여론전

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의 조직적 반발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수사권 조정의 세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관련기관 등을 통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경우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입법예고안의 수정을 촉구했다.

경우회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사소

송법·검찰청법 시행령은 '견제와 균형', '검찰개혁'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 경찰들의 모임인 경우회는 이번 입법예고안과 관련, "검찰권을 크게 확장시키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形骸化)·내용은 없이 뼈대만 남게 된다는 뜻"했다"고 했다. 경찰의 불구속 송치 종결 이후 법률이 허용한 재수요 요청 외에 송치 요구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장치가 추가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경찰의 직접수사 축소'라는 입법 취

지에도, '미약범죄'를 경제범죄, '사이버범죄'를 대형범죄에 포함시켜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섰고 압수수색영장만 발부받으면 모든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청도 여론전에 나섰다. 법무부가 해당 대통령령안을 24일 차관회의에 상정하고 나면 수정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언론에 참고자료를 내놓는 등 분주하다.

다만, 전국 순경 채용 필기시험을 둘러싼 문제 사전 유출 등 불거지고 있는 문제점 등으로 괜한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

초사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경찰청은 이날 참고자료를 내놓고 "성급하게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대통령령안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초 형소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령은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형소법, 검찰청법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사립초등학교 연간 학비 1200만원...대학 등록금 2배

공·사립 교육 격차 심화 우려

사립학교법인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광주 지역 사립초등학교들의 연간 학비가 1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이 광주 지역 사립초등학교 3곳(살레시오, 광주삼육, 광주송원)의 예산서를 분석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학비(입학금·수업료·수익자부담금 등)는 살레시오초 1200여

만원, 광주송원초 1070여만원, 광주삼육초 1020여만원에 달했다. 이러한 액수는 대학등록금 대학 알리미 기준 2020년 한해 평균 등록금 670만 원보다 40% 정도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 사회에 따르면 사립초등학교의 학부도 부담금은 '수업료, 입학금 등 등록금'과 '수익자 부담금'으로 구분되는데, 2020학년도 신입생이 의무적으로 낼 등록금은 연간 590~670여만 원으로 학부도 부담금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이 가운데 두 개 학교는 지난 2015년

에 비해 연간 100여만원의 수업료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자부담금은 공통적으로 졸업앨범비, 방과 후 교육활동비, 현장 체험학습비 등 교육 활동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벌없는 사회 관계자는 "이처럼 학비가 비싼데도 이들 사립학교 법인은 전체 학교 예산의 1%도 지원하지 않고, 교육청으로부터 무상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며 사립학교 법인의 각성을 촉구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그린 리모델링' 속도 낸다 국토부 지원대상 사업 선정

화순전남대병원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 쾌적한 병원환경 조성 속도를 더하고 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15년 이상 경과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 개선 등을 위해 진행하고 있다.

올해 개원 16주년을 맞은 화순전남대병원은 외래·병동 내부장분 전체에 고성능 창호틀을 추가 설치하고, 아직 교체하지 않은 기존 형광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 개선을 위해 응모, 지원대상 병원으로 선정됐다.

그 결과 총사업비 30억원 중 1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 올해 설계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중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완

료할 예정이다. 화순전남대병원 신명근 원장은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청정지역의 암투와 병원에서 고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더 높은 환자 중심의 치유환경을 제공하고, 진료와 업무 공간의 조도 개선과 전기에너지 절감도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초·중·고 독감 백신 9~12월 학교별 분산 접종

정부가 초·중·고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수요 분산을 위해 9~12월중 학교별 분산 접종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초중고별로 '집중 접종 기간'을 지정하고 사전 예약제로 접종 시행한다고 밝혔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8세까지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했으며, 3가 백신 접종을 하던 예년과 달리 4가 백신으로 지원한다. 대상 학생과 학부모는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cdc.go.kr) 또는 스마

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집에서 가까운 접종기관을 확인한 후, 사전 예약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접종받으면 된다.

학생 접종 시 보호자(또는 법정대리인)와 동행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작성한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나 '예방접종 예진표'를 지참하면 보호자 없이도 접종이 가능하다. 또 등교일에 접종하는 경우 '병·의원 방문확인서'나 '접종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사일정 운영에 혼란이 없도록 10월 말까지는 접종을 완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광주 5개구 추석전 긴급지원

광주시 5개 자치구가 집합금지 명령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고위험시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석전 긴급지원을 한다.

20일 광주시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5개 구청장은 집합금지 명령에 동참해 영업 손실을 본 시설을 대상으로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광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고위험시설 50만원, 종교시설은 3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규모는 고위험시설 18개 업종 8686곳이며, 총 지원금은 39억 7000여 만원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물공제조합 광주사업소가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2020. 8. 1부터 독립된 지부로 승격하여 새 출발합니다.

화물공제조합 경남지부
광주사업소
(2007. 9. 1 ~)

➔

화물공제조합
광주지부
(2020. 8. 1)

- 광주지역 조합원의 자긍심 고취
- 광주지역 조합원에 대한 원활한 공제서비스 제공

"광주광역시 화물운송사업자와 차주분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광주지부로 거듭나겠습니다."

전국화물연합회 회장 김 옥 상

부산화물협회 부회장 김 동 석

인천화물협회 부회장 심 재 선

대전화물협회 부회장 박 기 승

전남화물협회 부회장 박 종 기

서울화물협회 감사 신 예 수

울산화물협회 감사 김 영 기

경기화물협회 감사 고 달 현

광주화물협회 이사장 최 경 식

경남화물협회 이사장 최 경 식

부신화물협회 이사장 신 현 준

광원화물협회 이사장 전 수 산

송파화물협회 이사장 변 경 연

송남화물협회 이사장 최 철 운

진북화물협회 이사장 정 동 식

경북화물협회 이사장 김 화 열

제주화물협회 이사장 고 경 철

안남화물협회 이사장 김 성 철

세종화물협회 이사장 임 영 수

전국화물공제조합 이사장 서 훈 석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